

『The Purpose Driven Life』 교재를 활용한 대학교양영어 수업사례 연구*

김 종 국**

논문초록

우리나라 초창기 영어교육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위한 접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와 같은 흐름이 일제시대 이후로 단절된 가운데 오늘날의 영어교육은 주로 시험 및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교양영어 교과과정에 영어과목이 존재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과목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영어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 베스트셀러인 『The Purpose Driven Life』(Warren, 2002)(한국어 제목: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신앙서적을 영어교재로 사용한 대학교양영어 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기독교적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교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2장에서 기독교적 영어교육의 목적, 기독교적 영어교재 및 기독교적 영어교수자의 정체성을 언급하였고 3장에서는 구체적인 강의 사례와 함께 학생들의 저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업에서 읽기, 듣기, 쓰기 및 말하기의 의사소통 네기능을 통합한 수업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신앙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강의 사례소개를 통해서 교양영어 선택과목이 확대 발전되면서 대학교양영어 교실에서도 학생들에게 성경 및 신앙서적을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전달하는 좋은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적 영어교육, 영어 베스트 셀러 활용, 의사소통 4기능 통합지도, 대학교양영어

* 본 논문은 2012년도 장안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장안대학교 교수

2012년 5월 1일 접수, 6월 1일 최종수정, 6월 19일 게재확정

I. 서론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어가 문화간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에 맞춰 영어는 국내 공교육과 사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초창기 역사에서 영어는 선교사들이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의 중요성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일제시대 이후로 신앙교육적 영어교육의 흐름이 단절되었다. 일제시대 이후 영어교과는 가치중립적이고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독립된 지식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되면서(김영숙, 2003),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교육은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인데, 주로 초등학교때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본적인 학습에 이어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은 입시위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습 및 평가가 진행되었다. 대학에서도 영어를 교양필수과목으로 배우고 있지만 많은 대학생들에게 영어는 취업 및 유학에 유리한 영어 시험준비를 위한 것으로 영어가 입시 및 취업과 승진을 위한 도구적인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종국, 2006).

이에 반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한 영어교육의 목적이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와 실용주의만을 추구하는 도구적인 목적을 초월하여 신앙의 성장과 함께 예수님 제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할 수 있다. 지적이고 사회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어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을 따라서 영어를 교육함으로써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교육시키는 것이 문화창조의 사명에 순응하는 이 시대 영어교육 분야의 요청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국내 연구 문헌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영어교육에 관한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다행이라 생각한다(김영숙, 2003, 2008, 2009; 이성희, 2003, 2006,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논의는 상당히 부족하며, 신앙과 영어교육을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교수자와 교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먼저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자가 성경적 가치관 및 세계관으로 인격화된 가운데 영어교육 활동을 자신이

속한 교육현장에 맞게 연구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된 교수자의 사상과 가치가 교육행위를 통해서 가장 크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담고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선정하는 일의 중요성도 간과 할 수 없다. 영어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나 함축적으로 교육내용이 제시됨으로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 삶에 대한 통합된 관점을 설정하는데 교수자와 영어교재가 가장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 베스트 셀러인 Rick Warren의 『The purpose-driven life』 “What on earth am I here for?”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만 3천만부가 판매되고 전 세계 50여개 언어로 번역된 역사상 가장 인기를 끈 논픽션책이며,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많이 읽힌 책이다(크리스천 투데이, 2011. 6. 2,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7217> 검색일 2012. 4. 30).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섯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예수님을 닮아가기, 다른 사람들 섬기기, 예수님을 소개하기 등 총 40장으로 구성된 책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접하고 발전시키는데 유용한 교재로 볼 수 있다. 이 교재를 대학생들과 클럽활동으로 함께 강독하면서 참여자들이 성경말씀과 이에 따른 교훈을 통해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과정을 보고 경험하면서 연구자 자신이 속한 대학교양영어교육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을지 모색하였다. 본 교재를 활용해서 대학 교양 영어 현장에서 교육을 실행했던 경험을 한편의 강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기독교적 영어교육을 모색하는 교수자들에게 한가지 좋은 샘플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회심한 기독교인은 성경을 알아가면서 진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빌 3:8)이라는 고백과 함께 복음의 빛진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육자로서의 삶의 터전인 학교 및 교실에서 영어교수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

실에서도 복음전파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기독교 영어교수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적 영어교재를 사용한 영어교육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독교적 영어교재

영어교육은 영어교재, 교사,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중에서 영어교재는 교육의 내용과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Byrd, 2001). 이는 영어교재가 교육과정과 강의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학생들을 영어에 노출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외국어로서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재가 언어 입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학생이나 교사 모두 영어교재에 있는 예문과 의사소통 과업 자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교재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영어교재의 영향력 및 영어 학습에 대한 욕구의 증진과 함께 영어 학습 교재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출판된 영어 학습교재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교수자 및 영어 학습자가 비교적 신속하게 합리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습 교재를 선택하고, 교재를 교육 목적 및 환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영어교재가 담고 있는 다양한 학습 주제들과 활동들이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복음전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교재가 과정의 목표와 어울리는 것이어야 하고 교사의 언어와 학습에 관한 신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신념, 선호도와도 일치해야 한다(Nunan, 1998). 하지만 영어교재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영어교재의 내용보다 교사의 사상이나 가치가 교수자에게 반영되었을 때 학습자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어교재는 이를 집필하고 편찬해내는 저작자의 사상과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필자와 편찬자의 의도와 가치에 의해 내용이 결정 된다고 볼 수 있다(Smith & Carvill, 2000). 이에 대해 Brummelton(1998)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재들은 호소력있게 잘 서술된 반면에, 대개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세계관과는 상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교와 믿음은 삶에서 중요하

지 않다고 암시하고 있으며, 윤리적 상대주의를 부추기면서 여러 가치관을 절대적인 규범에 비추어 주지 않고 그 선택들을 학생들에게 맡긴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어떤 시야로 영어와 세계를 바라보는지 교재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는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및 중립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교육현장에서 각 교재의 유익과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미리 파악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해서 학습자의 관심과 필요를 반영하는 교재를 통해서 강의자가 수업현장에서 나름대로의 적용점을 쉽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외국문화에 대해서 물질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생활 측면이 제시되고 또한 외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종교를 배제하고, 미신과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서양문화에 대한 왜곡된 면까지 제공되고 있다(Smith 1993; Smith & Carvill, 2000). 교재선정에 있어서 내용의 적절한 수준과 표현의 정확성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재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재로 흥미와 진정성이 떨어진다. 현재 대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EFL 및 ESL 교재들이 학생들의 관심과 필요를 담으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교수자나 학습자가 성경적 세계관과 연관시키기가 쉽지 않다.

성경적 세계관의 근본이 되는 영어성경을 교재로 사용해서 강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수업시도가 진행될 수 있지만 방대한 양과 고어체가 많아 현대 영어와 동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 활동 과업에 부족한 부분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기가 쉽지 않음을 언급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적 측면에서 장별로 공부해 나갈 때 일관된 주제나 교훈을 집중해서 배우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한 영어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 영어성경을 활용한 단순한 교재 개발 연구를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한 교재를 활용하여 통합적 영어 수업에서의 교재로 실제 사용한 예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기독교적 영어교재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로 이성희(2006)가 제시한 영어교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 영어 교육의 목표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적절히 반영하는가?
- (2) 기독교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그 내용이 적절한가?
- (3)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헌신, 삶의 우선순위 및 목적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 (4) 영어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가?
- (5) 학생의 영어 및 인지적 수준, 흥미, 관심, 현재 및 미래의 의사소통적 필요를 적절히 반영하는가?
- (6) 학생에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가?
- (7)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자극하는가?
- (8) 학습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9) 교사의 영어 수준, 문화체험 정도, 교육 배경, 교육 시간 등의 교사 요인을 감안하고 있는가?
- (10) 학교 환경 및 교수실정에 적절한가?
- (11) 수업 활동 간의 연계, 균형, 통일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가?
- (12) 학생과 교사가 융통성 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가?
- (13) 교재의 외적 체재가 학생과 교사에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매력적인가?
- (14) 교재의 값이 적절한가?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따라서 책을 선택할 때 보다 다양한 면을 살펴볼 수 있었고 『The purpose driven life』가 적합한 기독교적 영어 교재로 선택되는데 무리가 없었다.

2. 기독교 교수의 정체성

영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수자¹⁾로서의 정체성은 때에 맞게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여 나아가서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교수는 교실에서

1) 교수(professor)라는 단어는 profess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로 자신의 신앙이나 확신, 혹은 견해를 공중 앞에서 고백한다는 어원적 의미가 담겨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교수방법이 통합되어 학습계획에서부터 학습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동역하면서 구체화할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향을 검토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소재부터 시작해서 그 삶의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희영과 정희정(2006)은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그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교사는 단순한 교사일 뿐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로서 학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을 구속사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영어교육 문헌에서 이성희(2007)은 먼저 영어교수자로서 강의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침과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영어교수자는 다른 교수자보다도 성실히 교수자의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고, 가르침에 있어서 전문적이어야 하며, 학생들과는 다정하면서도 공평하여 존경받는 친구와 도우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관심에 대한 그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도하기까지 교사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실 분위기 및 사제관계가 조성될 때 교수자의 복음메시지가 학생들에게 식상한 종교인의 상투적인 홍보가 아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구원을 갈망하는 진실한 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영어교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기독교 영어교사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며 일반 영어교수보다도 더 깊은 수준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학문적, 영적 이해를 습득한 상황에서 영어교육 현장에 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독교 교수의 자질은 처음부터 모두 갖춰져야만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총체적 언어 교수법과 내용중심 교수법

일반적 영어교수방법들과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한 가지의 유일한 기독교적 언어교수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널리 알려진 특정 영어교수법 중

가장 유행하는 방법을 택하여 그것을 교실수업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특성과 학습 방식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다 바람직한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영어교육 방법은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강의자가 현재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는 활동들, 교수법들의 가정들을 검토한 후에 그것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여러 교수 방법 가운데 The purpose-driven Life를 강의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총체적 언어교수법과 내용중심 접근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총체적 언어교수법(Whole Language Approach)은 언어를 음소, 형태소, 단어의 조각으로 보던 견해에 반하여 언어가 의미있는 전체(meaningful whole)로 간주하여 구어와 문자 언어간의 상호연결성과 통합수업모형을 제시한다(Brown, 2007). ‘통합적’이란 말은 다음의 세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언어의 기본단위로 의미의 덩어리(whole)를 다룬다는 의미이며 둘째, 언어교육을 통합적으로 한다는 뜻을 갖는다. 지금까지의 언어교육은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구분하여 학습한다고 보았으나 통합적 언어접근법은 언어를 즐기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의 구어의 사용을 강조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언어의 네 기능을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바라본다. 셋째, 교육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의미이다. 읽고 쓰는 과정은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그 주제의 공통성에 따라 묶어서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통합적 언어교수법은 언어의 전체에서 부분과 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접근법이다. 또한 언어기능의 통합교과내용 또는 방법 간의 의미있는 통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파악을 위해 언어의 네 기능들을 주제의 공통성에 따라 통합된 교육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수·학습하여야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driven life가 언어의 각 부분에 대한 강조보다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이해 및 적용을 의도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읽기 듣기 및 쓰기 및 나누는 네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통해서 책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1980년대 후반부터 영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내용중심 교수법(Content Based Instruction)은 언어학습과 내용학습의 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외국어 학습의 초점이 언어학습에 한정된 기존의 영어교육과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중심 교수법의 특징으로는 영어 교육의 초점을 학습자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언어형태와 언어기능에 맞출 것을 강조한다. 내용을 통한 언어학습이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초래한다. 내용중심 교수법은 학습자의 기존 경험을 학습에 활용해야 한다는 교육학적 원리를 반영한다. 언어학습은 사용맥락과 유리된 단편적인 언어용법(usage)의 학습보다는 사용맥락 속에서의 언어사용(use)의 학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언어입력이 상황맥락과 언어적 맥락 속에서 주어질 때 언어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력(comprehensible input)이 될 수 있다(Brinton, Show, Wesche, 1989). Brinton 외 2인은 내용중심 교수법이 대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III. 강의 사례 및 저널 분석

이 과목명은 성경영어로 안양대학교 교양선택 과목에서 실무영역에 속해 있다. 많은 기독교대학을 표방하는 대학에서도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양영어교과과정을 찾아보기 힘들며,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과에서 영어 원서 강독으로 일부 개설된 것이 현실이다. 개설 목적에 따라 ‘성경 영어’란 과목의 성격이 다르게 파악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강의 담당자에 따라 같은 이름의 과목도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과 언어적 지식 전달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성경영어는 3학점 과목으로 75분씩 주 2회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수업의 반정도는 정독과 함께 행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오디오 북 듣기, 영어 찬양 및 멀티미디어 활용,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지루하지 않게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적용하며 작성한 저널을 발표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나눔을 통해 더 깊고 폭넓게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서나 언어적인 면에서 코멘트를 주고 받으면서 상호작용을 증진시켰다.

본 연구는 강의 진행의 구체적인 여러 영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와 관련된 학생

들의 저널을 분석해서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저널 작성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경우와 수업과 관련된 부분을 교수와 상호작용하고 싶은 내용을 저널에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생들 저널을 활용한 이유는 학생들의 성찰일지 과제에 쉽게 참여하여 학생들의 삶과 인식의 변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저널 작성은 영어를 포함한 제2언어 학습자들을 연구자들이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사용하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데이터 추출 방법이다(Baily & Ochsner, 1983; Nunan, 1989). 이를 통해서 실증주의적 연구도구로 접근할 수 없는 변수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기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는 결국 실험, 설문조사 등의 기법으로 교과과정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업 참여자 자신의 관점에서 혹은 교수 및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관찰 및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수업의 운영과정을 성찰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찰적 저널작성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참여자의 기록으로 남겨진다.

1. 강의 목표

안양대학교에서는 교양 필수로 영어과정에서는 실용영어와 영어회화를 수강하게 되고 교양영어 선택과목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영어과목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었다. 교양선택 과목 가운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삶의 방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영적인 측면과 외국어 능숙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경영어 과목이 2009년도에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서 개설되었다.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자라나는 글로벌 사회의 시민으로서 영어를 통해 미래를 실제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측면이 고려되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를 품게하고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개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1>은 2011년도 강의 계획서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표1〉 강의 계획서 개요

| | |
|----------------|--|
| 과목개요 | 본 강좌는 영어 성경과, Purpose-driven life(Rick Warren, 2002)를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데 있다(롬 12:1,2; 고후 1:3,4). |
| 수업목표 | 본 강좌는 영어 베스트 셀러교재를 활용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며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영어의사소통 4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 주교재 및 부교재 | Purpose-driven life(Rick Warren, 2002) Zondervan. English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
| 수업방법 | 강의, 오디오북 청취 및 관련자료 활용, 발표. |
| 평가 | Reading Comprehension, Writing Journal, Presentation, Memorizing Verses. |
| 수강학생 유의 및 참고사항 | * 영어의 4 skills을 통합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분량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성실하게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수강신청하기를 바랍니다. * 비기독교인이더라도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공부해 나갈 때 영어능력 향상과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의 안양대학교 영어강의가 시험준비 중심이나 의사소통 능력개발의 강좌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기회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하게 되었다. 특별히 영적인 성장을 강조한 강독 교재와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삶에 구체적 적용이 나타나는 학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깊은 묵상과 나눔과 적용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쉽게 잊혀지고 내면과 삶의 변화로까지 유도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는데 보다 깊은 성찰과 적용중심으로 진행하고 싶은 동기로 시작되었다.

강의 첫 시간에 한 학기 강의를 소개하면서 로마서 12:2과 고린도후서 1:3,4 두가지 성경말씀으로 강의에서 기대하는 바를 설명하였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e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Romans 12:2. NIV)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compassion and the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e ourselves have received from God.(2 Corinthians 1:3,4, NIV)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 수업을 통해서 일반적인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한 책을 강독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은 영적인 성장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Hull, 1985) 그 생각의 초점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Piper, 2010)임을 강조하였다. 고린도 후서 1장 3, 4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것은 두 번째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인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서만 머물지 말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정, 교회, 학교 상황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사용하는 목적이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보다 가치있는 목적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마땅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강조점에 따라서 작성된 두가지 학생 저널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두 학생 모두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사과와 회개의 행동을 취한 부분을 알수 있다.

I really do need to restore a broken relationship with my only brother. When we were in the Philippines, I hit him very often that he did not study and focus on playing computer games. As a result, he closed his heart toward me. So I truly apologized to him that I did wrongly to him. However, he could not receive my apology that his hurt was so great. I really want to restore the broken relationship with him.(이OO 학생 저널)

교재를 통한 메시지와 강의를 통해 배우는 점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나아가야 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그런 강의를 들었을 때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난날에 가족들에게 더 잘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질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OO 학생 저널)

또한 강의를 수강하는 한 학기동안 이 책을 가지고 아침에 QT(Quiet Time)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을 알려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QT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착념하며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QT를 잘 알지 못하고 생소한 학생들에게는 QT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주로 정해진 본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와 우리의 깨달음, 그리고 말씀의 실천목록과 점검사항, 그리고 그에 따른 본인의 기도문을 기록하는 양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김양재, 2002). 그래서 한 학기가 마칠 때에는 본 교재의 Day 40까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Question to Consider” 전체를 작성하는 것이 가시적인 목적이 되었다.

제한된 수업시간으로 인해 한 학기동안 집중해서 다룰 내용은 23장 이후부터라고 소개하였다. 교재에서 제시된 5가지 목적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기와 주님을 섬기는 삶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수강생의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내용은 익숙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2장까지의 내용은 강의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강독을 하면서 저널 작성을 한 후에 과제로 제출 하라고 강의계획서에 제시하였고 첫 시간에도 강조하였다.

언어의 의사소통적 측면에서는 읽기, 듣기, 쓰기 및 말하기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언어 각 기능에 대한 학습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연관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읽었던 내용과 오디오북으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저널을 기록하고 기록했던 내용을 영어로 발표한다면 말하기 실력까지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언어의 한 기능이 다른 기능을 촉진하며 향상시키기 때문이다(Hughes 1992). 『The purpose driven life』가 표면적으로 독해 능력만이 요구되는 것 같지만 수업활동을 통해서 오디오 북 활용을 통한 듣기, 또한 “Question to Consider”에 대한 쓰기 및 말하기 발표 능력 향상으로 전이되는데 각각의 의사소통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 출발점을 읽기로 볼 수 있는데 Krashen(1985)에 의하면 제 2언어 습득에서 읽기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며 읽기를 통해서 모든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훈련되고 쉽게 생각하는 읽기를 통해 다른 기능으로 전이 된다는 측면과 함께 내용의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본 교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수강대상

본 강의는 2009년부터 개설되었고 1학기에만 개설되는 강좌이다. 수강인원은 2009년 첫 학기 강의시에 최대인원인 50명의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고 5분안에 강좌가 마감되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저널을 깊이 읽고 코멘트 해주거나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감소되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구체적인 학습량을 제시하면서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강할 수 있는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 그 결과로 수강학생은 평균 20명 내외로 수업시간에 함께 토론하고 상호작용하기에 적절한 인원으로 판단된다.

수업 첫 시간에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전달한 후 각 학생들에게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본 강좌를 신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강좌가 교양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영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였다. 수강신청 한 학생들은 1학년부터 4학년에 고루 걸쳐있었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 만큼이나 기독교인들이라도 신앙생활의 경험과 영적인 관심과 깊이에서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자신을 비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하였다.

비기독교 학생들의 경우 처음으로 성경을 포함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베스트 셀러인 책을 공부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강한 학생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조언을 받으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수강한 학생이나 1년 전에 실용영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수강신청했던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10-20% 정도의 학생이 손을 들었다. 비기독교 학생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강의, 발표, 평가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저널은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서 갖게된 생각의 변화를 소개해주고 있다. 이 학생은 처음에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The purpose driven life』 교재에 나오는 영어적 수사법을 통해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점점 수업을 하다 보니 영어문장도 흥미 있고 특히 영어로 된 성경말씀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받은 느낌이 시 같은 느낌이었을 정도로 어휘의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들고 비유 같은 경우에도 의미가 강렬하고 또한 다른 영화, 소설, 관용적 표현에 쓰이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 수업으로 알게 된 것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사실 전에도 성경을 읽고 싶긴 했지만 집에 있는 성경을 보면 너무 말이 난해하고 사극에서도 못 본 언어 체계로 구성되어있어서 상당히 읽기 부담되었는데, 지금처럼 영어로 보니까 강한 수사들을 제외하면 너무도 말씀하나 하나가 시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수업이 지닌 어려움에도 계속 할 수 있었던 흥미가 생겼습니다.(박OO 학생 저널)

3. 교재선정

2.2에서 논의한 바대로 교재 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 영어 교육의 목표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적절히 반영하는가? 본 책에서 일관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 5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 (2) 기독교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그 내용이 적절한가? 많은 독자들 및 영향력있는 지성인 및 언론인들이 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언급하고 개인적으로도 그 유익을 경험하였다.
- (3)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헌신, 삶의 우선순위 및 목적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본 교재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5가지 목적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믿음에서 성장하기, 섬김, 사역.
- (4) 영어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가? 책의 전반부에 저자가 속한 미국사회에 대한 많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 (5) 학생의 영어 및 인지적 수준, 흥미, 관심, 현재 및 미래의 의사소통적 필요를 적절히 반영하는가? 이 책에서 저자가 영어교육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의도하고 있다고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Question to Consider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 (6) 학생에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가? 학생들이 Question to Consider를 발표하기 위해서 발표준비를 하면서 실제 발표하면서 좋은 표현들을 암기 및 훈련할 수 있다.
- (7)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자극하는

가? 저자 및 교재 내용이 한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을 영어로 공부하는 것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고,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8) 학습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제목 아래 도입부에 그 과의 핵심을 보여주는 인용이 있고, 전체 강독 이후에 Point to Ponder, Verse to remember, Question to Consider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9) 교사의 영어 수준, 문화체험 정도, 교육 배경, 교육 시간 등의 교사 요인을 감안하고 있는가? 교사의 지금까지 원어민과 수업을 받았던 교육 및 문화 배경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 (10) 학교 환경 및 교수실정에 적절한가? 이는 주로 영적인 동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11) 수업 활동 간의 연계, 균형, 통일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가? 책은 도입부에 이 책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보여주고 읽기, 듣기, 쓰기, 및 발표로 말하기의 의사소통의 네 기능이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 (12) 학생과 교사가 융통성 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가? 반드시 모든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의 재량에 따라 모든 내용을 다룰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학습할 수 있다.
- (13) 교재의 외적 체제가 학생과 교사에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매력적인가? 전체 40개의 챕터에서 교사가 그 학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5가지 목적이 가르치고 배우는데 유용하다.
- (14) 교재의 값이 적절한가? 만원정도로 다른 영어교재(만오천원에서 이만원)보다 저렴하다.

이와 같은 14가지의 기준에 맞춰서 선정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였다.

4. 강독

먼저 오디오 북을 통해 이 책의 저자가 들려주는 목소리로 반페이지씩 듣기를 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단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학생 스스로 파악하도록 듣게 하였다. 그와 함께 어휘, 구문, 전체적 맥락에서 이 단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

달하려고 하였다. 듣기 활동 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자가 코멘트 하면서 학생들 자신의 해석과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이 미리 한번 읽고, 듣고, 수업시간에 코멘트 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해결해 가면서 책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반복하는 과정을 지속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책의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수업시간의 읽기는 다독(extensive reading)보다는 정독(intensive reading)을 통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시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학생들 중에 전에 우리말로 된 책을 읽어보았지만 영어로 읽을 때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다음과 같이 확인 수 있었다.

I read the purpose driven life book in Korean before. But, it was different this time, I learned a lot, and it helped me to reflect myself again and it touched me.(김OO 학생 저널)

5. 영어 찬양 및 동영상 활용

말씀이 믿음을 창조하기에 텍스트를 통한 접근법이 가장 좋지만, 머리로 이해되고 귀에 들리는 말씀을 넘어서서 멀티미디어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다양한 말씀을 접하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었다. 이 시대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고 자라난 학생들에게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강위 위주의 교육은 설득력과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멀티미디어가 수업 중간에 전달방법으로 사용될 때 학생들과 접촉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강의 중간에 수업내용과 관련된 영어 찬양은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때로 설교 한편보다 찬양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더 큰 영향을 받았던 연구자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영어 찬양의 영향도 중요했다. 찬양이 동영상과 함께 제시될 때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우리말 찬양에서 알지 못했던 의미까지 파악하기도 한다. 찬양하면서 감성과 지성이 함께 자극되면서 오래 기억되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서 더욱 흥미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게 된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영어로 된 영화(예를 들어 Chariot of Fire(불의 전차), 나니아 연대기, Evan Almighty)는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었

다. 이에 따라 수업 내용과 관련된 비디오 클립을 선별하여 적절하게 활용될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영어 찬양 및 영화와 같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제시할 때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자극해서 학습에 동기부여하려면서 언어적 능숙도가 발전되고 학습의 효과도 커질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었다.

6. 저널 쓰기

책에서는 각 장 마지막 부분에 A Question to Consider부분을 통해서 본문에서 읽은 내용을 개인의 삶속에 저널로 기록할 수 있게 의도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다.

The best way to become a "doer of the Word" is to always write out an action step as a result of your reading or studying or reflecting on God's Word. Develop the habit of writing down exactly what you intend to do. This action step should be personal(involving you), practical(something you can do), and provable(with a deadline to do it). Every application will involve either your relationship to God, your relationship to others, or your personal character. (p 192)

저자는 이와 같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결과로 실행과정을 기록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 기록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을 함으로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성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발견한 지식과 통찰 및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내용들을 노트나 컴퓨터에 기록함으로써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글쓰기 과정일 수 있다. 저널을 작성하기위해서 학생들은 먼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삶에 구체적인 적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강은주(2007)는 글쓰기를 통한 내면의 치유에 대한 효과는 정신건강, 교육, 목회상담, 의료계의 많은 임상적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되어 왔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기이해와 자존감의 기초위에 선 든든한 성화의 삶을 이

루어 가는 데 대안적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치료할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여 주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내어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업시간에는 학생이 작문 및 발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다. 영작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외에도 연구실 방문 및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장 및 단락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도가 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교수자의 저널을 발표의 예시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유의할 점을 언급해 주었다. 또한 저널을 작성할 때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글로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였다.

언어적 능숙도에 따라서 영어 글쓰기의 초점은 달라졌다. 수강생들 가운데 영어로 문장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에서부터 어려움 없이 영어를 영작할 수 있는 영어권 국가에 다년간 거주 경험이 많은 학생까지도 있었다. 영작 훈련이 미흡한 학생들의 경우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 주목하지만 중급학습자 이상의 경우에 문장의 연결과 단락의 구성까지 초점 맞춰서 학습이 진행되었다. 영작의 초점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글로 옮기는 학습에 집중하였다. 교정에 있어서도 초급 수준의 학생들에게 영어의 틀린 곳 마다 빨간줄을 그어 수정한 것 보다는 내용의 전달에 초점을 두어 피드백을 제공했었던 것 것이 영어의 유창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끔씩 내용 전달에 지장을 주는 빈도수가 높은 오류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표시를 해주었을 때 주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수업시간에 반복적으로 문법적 정확성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수사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아무리 좋은 문장을 쓴다해도 삶의 적용점이 약하다면 피상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제가 정말 영작을 잘 못하는데, 매주 영작을 해서 올려야하고, 다른 과제들도 올려야 하는 부담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다 보니 정확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고 틀려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자신감은 생겼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김OO 학생 저널)

위의 저널은 반복적으로 영작을 해 나가면서 문법적으로 틀리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영작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학기동안 학생들의 영작내용을 검토하면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가 많이 사라지고 단락의 내용도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평가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 학생의 경우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ers of Foreign) 능숙도(proficiency) 기준으로 학기초에 초급중(Novice-mid) 수준이었지만 한학기가 마치는 시점에서 작성한 저널은 중급초(Intermediate-low)이상의 영어 능숙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7. 나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2회 정도씩 각 장이 끝난 후 목상을 발표하게 된다. 20여명의 학생들의 글을 제한된 시간안에 나누기 위해서는 한 과에 2명씩으로 제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발표하는 시간과 코멘트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먼저 학생들에게 자신이 맡고 싶은 과를 선택하게 한 후에 빈 곳에 다른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장의 저널을 발표하게 했는데 책을 미리 읽지 않은 상태에서 정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아서 편의상 번호 순서대로 할당해서 발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를 맡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듣게 되었다.

학생들의 저널 작성과 발표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행했던 부분을 돌아보게 되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잘되는 부분은 명확히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독창적인 목상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뿐 아니라 사고의 균형감각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에 나오는 저널은 저널 작성과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나눔의 유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제가 선데이 크리스찬임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남들처럼 교회활동을 잘하거나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아니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누려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데 너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거예요. 생각은 믿고 있는데 행동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아니다 싶어서 요즘엔 자기 전에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할 자신이 없

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등 돌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 과목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다른 학생들과 교수님과도 나눈 대화는 많지 않지만 이 수업 덕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가만히 있는 것 보다 나눔의 시간도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염OO 학생 저널)

특히 많은 question to consider의 물음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는 질문과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일 물어보는 질문은 왜 그러한가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져서 스스로에 대한 재평가와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교수님과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은 내 자신이 보기보다 문제가 많았고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요소를 좀 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 관점의 의견은 좋은 겁니다. (박OO 학생 저널)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발표하고 코멘트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남들의 의견을 묻고 같은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숙하고자 하는 변화의 가능성들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그 근본적인 죄성에 뿌리 둔 인간 내면이 온전히 치유되어야 함을 전제로 할 때 글쓰기와 나눔을 통한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에 소중한 초석이 된다(강은주, 2007)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발표하는 모습에 대해 각 학생들의 잠재력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동일한 학습 공동체에 속한 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발표 및 코멘트가 더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때론 강의를 마친 저녁시간에 식사를 같이하며 학생들의 소감을 듣기도 하면서 학습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발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본 강좌는 일반적인 영어 강좌 이상으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교수자 자신을 더욱 많이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뿐 아니라 개인 연구실에 와서 여러 질문과 고민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일 때 다른 과목과는 달리 개인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과목이 되었고, 한 학기를 마친 이후에도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몇몇 학생들에게 지적인 영향과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의 출발점이 된 것도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나누는 가운데 드러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미리 마련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였다. 일례로 멘토 및 멘티 관계를 사용하였는데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선배 학생에게 후배를 멘티를 붙였을 때 나타나는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자신이 거둬왔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구원에 대해 많은 고민과 학습 및 멘토링 경험을 한 학생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학기말에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나눔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였다.

8. 영어성경암송

저자는 교재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진리로 변화되기 위한 다섯가지 방법 “reading, receiving, researching, remembering, and reflecting(p. 188)”이 있다고 하면서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There are enormous benefits to memorizing verses. It will help you resist temptation, make wise decisions, reduce stress, build confidence, offer good advice, and share your faith with others (p.189).

저자는 우리들이 수백만 가지의 생각, 사실, 수치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암송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암송의 유익으로 사단을 이기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스트레스가 줄며, 확신을 세우고, 좋은 조언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각 장 맨 마지막 부분에 “Verse to remember”가 제시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암송의 유익을 경험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기말고사 이전에 약 15구절을 영어 및 우리말로 퀴즈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암송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교수자로서 현재까지 지속하는 좋은 습관으로 학생 때 부터 일주일에 한구절씩 암송을 해나갈 때 현재 친구절 정도가 머릿속에 암송되어 있고 일년에 두 번 정도씩 총 복습하는 습관을 형성하였고, 이와 같이 암송된 말씀들이 복음을 설명하고, 멘토링, 기도, 삶에서 중요한 결정 및 성품형성과 함께 영적인 성장에서 많은 유익을 실제로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보다 더 큰 유익을 직접경험해보기를 제시해 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퀴즈 시간에 열심히 암송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9. 평가

평가는 출석, 중간 및 기말 시험, 저널쓰기 및 발표로 구성되었다. 이중 중간 및 기말고사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단락 해석, 듣기, 저널 작성 등이다. 단락 해석을 위한 단락 선택은 각 시험 범위 전반에 걸쳐서 5-6단락 정도 정확하게 그 단락을 이해하고 있는지 해석하도록 출제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한 듣기 능력 시험으로 수업시간에 청취하면서 학습했었던 본문 내용을 3-4단락에서 20% 내외의 내용을 공란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오디오북을 들은 후에 기록할 수 있는 시험이다. 듣기능력보다는 문맥을 파악해서 작성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이해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교재에서 저널 작성과 관련된 영작문은 “Question to Consider” 질문 한가지를 그대로 활용하여 평상시 저널을 작성했던 훈련을 시험시간에 보여주는 것으로 하였다. 시험을 보기전에 문제출제의도와 평가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지 전달하면서 평소 수업시간에 다룬 연장임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에게 정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시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참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직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후에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였다. 요셉과 같이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 39:9)”라는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가르쳐주었다. 무감독 시험을 처음 경험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정직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나누는 학생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중 한 학생이 저널에 기록된 예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직함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물론 점수는 마음에 들지 않고 친구들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자신이 한일이 지워지지 않기에 상관없었습니다.(박OO 학생 저널)

학생들은 양심적인 중간 및 기말고사를 통해서 성적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자존감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평가 후에 각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이와 같이 학교와 교회에서 용기 있게 정직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이 배출될수록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과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유능한 일꾼들로 앞으로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정직에 대한 강조는 본 교재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일맥 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다.

“God’s ultimate goal for your life on earth is not comfort, but character development. He wants you to grow up spiritually and become like Christ.”(p. 173)

I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The purpose driven life』교재를 활용한 강의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텍스트 읽기, 저널 작성 및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적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과 교훈을 얻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여러 학생들의 저널을 통해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 모두 외국어 능숙도의 향상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고(벧후3:18) 문화 명령(창1:28)과 주님의 제자로서의 지상사명 성취(마28:19,20)를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토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다.

본 교재를 사용해서 각 교육기관 및 학습자의 능숙도의 수준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 교양과목과 관련해서 국내 60여개의 기독교

교 대학의 교양과목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교양필수 과목과 교양선택과목으로 운영된다. 교양 필수 과목의 경우, 수강생들 중 상당수가 비기독교인이며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강한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지만 교양 선택과목의 경우 영어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을 개발함으로써 영어를 통한 외국어 능숙도 향상과 성경적 세계관을 접하도록 하는 것도 건학이념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학문적 수월성과 함께 정신적이고 영적인 탁월성을 보이는 교육행위를 통해서 기독교 대학의 참모습과 학생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울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학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확대되는 이유로 다양한 학문과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아갈 세계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 성경적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더욱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영어 교육의 이론 및 실제 분야에 있어서 활발한 논의점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학교양영어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재를 활용해서 기독교 영어교육의 한 모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한 학기 강의 및 학생들의 저널에만 의존했기에 폭넓은 자료 제시 및 논의로 확장되지 않았기에 제한된 부분만 보여줄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연구 방법 및 강의 사례소개를 통해서 기독교적 영어교육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앙과 영어교육을 연계하는 강의 사례 연구 및 교재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독교 영어 교수들을 위한 교수 원리를 연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향후에도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교육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노력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심도 있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보다 실제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영어를 접하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영어교육 학문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은주 (2007). 기독교인의 성화의 삶을 위한 내적 치유 도구로서의 글쓰기치료. 『신앙과 학문』, 12(3), 49-82.
- 김양재 (2002). 『날마다 QT하는 여자』. 서울: 홍성사.
- 김영숙 (2003).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영어교육. 『총신대 논총』, 23, 314-346.
- 김영숙 (2008). 기독교인 예비영어교사들의 영어교육과 현장학교에서의 역학에 대한 인식. 『총신대 논총』, 28, 252-276.
- 김영숙 (2009).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영어교육의 실천. 『총신대 논총』, 29, 309-342.
- 김종국 (2006). 대학 교양영어 인터뷰 평가 연구. 『영어학』, 6(1), 179-200.
- 이성희 (2003). 기독교 영어 교육의 기본 과제에 관한 연구. 『총신대 논총』, 23, 299-313.
- 이성희 (2006). 영어 교재 평가의 기독교적 재조명. 『기독교와 어문학』, 3(1), 165-182.
- 이성희 (2007). 기독교 영어교사를 위한 교수 원리에 관한 연구. 『기독교와 어문학』, 4(1), 131-144.
- 정희영 · 정희정 (2006). 한국 기독교학교 교육의 현황과 그 대안. 『신앙과 학문』, 10(2), 169-211.
- Baily, K. M., & Ochsner, R. (1983). *A methodological review of the diary studies; Windmill tilting or social science?* In K. M. Baily, M, H. Long, & S. Peck(Ed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pp. 188-198). Rowley, MA; Newbury House.
- Brinton, D., M. A. Show, and M. B. Wesche (1989). *Content-based Second Language Instruction*. New York: Newbury House Publishers.
- Brown.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Y: Pearson Education.
- Brummelon, (1996). 기학연 연구모임 역.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서울: 기독교학생회출판부.
- Byrd, P. (2001). *Textbook: evaluation for selection and analysis for implementation*.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pp. 415-427), Boston: Heinle & Heinle.
- Smith. D. I., & Carvill. B. (2000). *The gift of stranger: faith, hospitality,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Grand Rapid: Eerdmans.
- Hull. B. (1985). *Right thinking*. Colorado Springs: Navpress.
- Hughes, A. (1992).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shen.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New York: Longman.
- Nunan, D. (1998).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 textbook for teachers*. New York: Longman.
- Nunan, D. (1989). *Understanding language classrooms: A guide for teacher-initiated action*. New York: Prentice Hall International.

Piper, J. (2010). *Think: the life of the mind and the love of God*. Illinois: Good News Publishers.

Warren, R.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Michigan: Zondervan.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7217>

ABSTRACT

A Case Study of a University General English Course by Using 『The Purpose Driven Life』

Jong Kuk Kim (Jangan University)

Although the first English education in Korea was initiated by missionaries to evangelize Christianity, this approach to English education was halt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even in the 21st century,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amount of practical and individual approach to English education in Korea, but little has been studied on Christian approach in that field. In order to fill this gap, we need to do more research on Christian English education. In this paper, a world best-selling book, 『The purpose driven life』(Warren, 2002), was used to explore a new way for Christian English education. By using this book, this paper tries to show an effective way to teach a Biblical point of view as a case study of a general English course in a university context. More specifically, chapter one is about the importance of Christian English educ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extbook. In chapter two, the importance of Christian English education, the identity of a Christian English teacher, and Christian English methodology were mentioned. In chapter three, teaching practice with an analysis of the students' journals was reviewed. By integrating four communicative skills: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with the textbook, students have changed the way they think and act. In chapter four, a summary and a suggestion on how to teach Christian worldview were mentioned.

Key Words: Christian English education, Christian textbook, Best-selling book, English methodology, University general English course